

신주거 문화의 시금석

A Touch of New Housing Culture

朴研心/건축사 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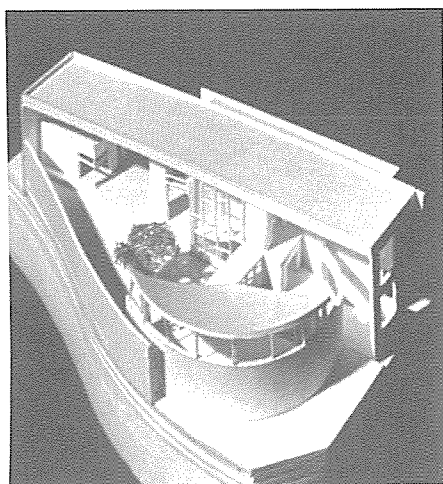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분당신도시개발은 인구 40만의 대규모 신도시로써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유례없는 계획개발이었고 이제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기간의 시행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으나 인구에 적합한 도로망계획과 공공시설의 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인구분포는 도시의 전체 용적을 180%정도로 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중심부는 고밀도로 외곽은 저밀도로 계획되었으며 주거의 형식은 아파트주거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층연립, 타운하우스, 독립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당신도시의 고층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친지 한분이 '분당에는 골목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재미없는 도시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면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군에 놀라게 되는데 무슨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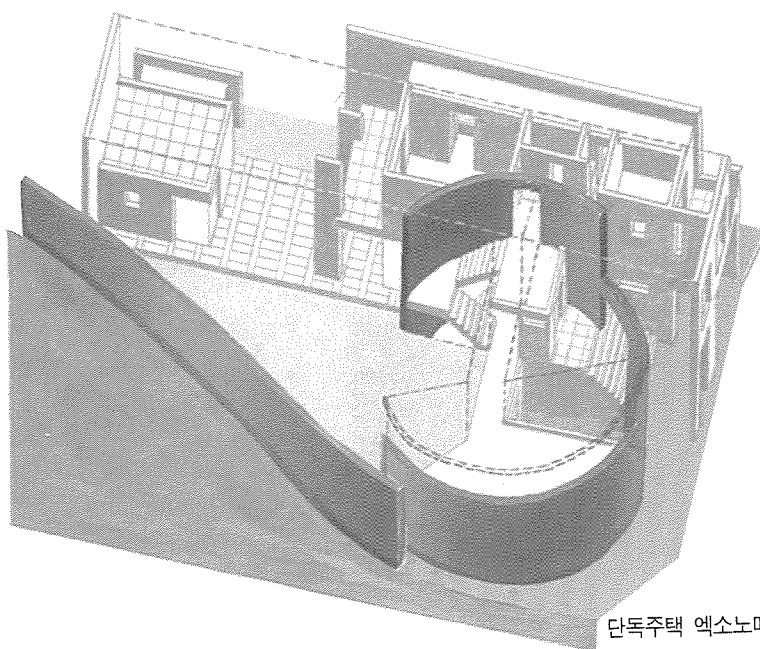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같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반면에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도시에서는 자연의 지세와 방위가 그대로 살려진 동네, 어찌먼 민중속에서 암암리에 사용되어 졌던 풍수지리까지도 읽어 낼 수 있을 것같은 골목어귀, 계단, 돌담들, 처마의 모임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그 하나하나는 필연적 조건들인 것이기에 아름답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들인 것이다. 그러고보면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들이라는데 그저 아침에 서울로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문자 그대로 잠만자는 도시 'bed town'의 기능으로써 고층아파트의 숲을 양산하는 정도로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야심적인 분당신도시 설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런 주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적인 프로그램들이다.

미래지향적이며 독창적인 예술성을 고취시켜 신도시로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가문화 부분에서는 쇼핑레저 단지를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참신한 계획안을 선택한다거나, 단천을 복개하지 않고 정수시설을 하여 경관을 살리려고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환경예술 부문으로는 단지내에 상징조형물이나 조각물을 놓도록 하고 가로시설물의 설계와 아름다운 다리놓기, 아파트단지의 외부색채계획, 예술의 거리조성에 힘쓰고 있고, 공공도서관, 과학박물관, 주택박물관, 건설기념관 등의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 부분 등에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범단지의 현상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조성과 단독주택의 단지화, 주거단지 지상부 공원화계획, 꽃길조성 계획 등과 함께 그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전람회를 계획했다. 이러한



단독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박연심 作

신도시개발의 기념성을 살리고 후세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건축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걸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당신도시 주택전람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도시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져서 고층빌딩군이나 도로망, 심지어 코카콜라선전탑까지 한 뭉치를 해서 과연 어느 도시에 와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문제는 도시가 당면한 세계적 경향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분당이라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고유성(identity)'을 생각해 본다. 상업용 건물들은 그 기술적, 기능적, 경제적 제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는 하지만 서울같은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마저 그러한 역사적 흔적은 점점 빌딩숲으로 가리워져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오래지 않은 신도시에서라도 그 도시의 고유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역사적 장소이외에 아마 이런 동네, 주택단지 등의 주거환경 부문에서 일 것이다. 특히 다량생산에 의한 아파트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립주택단지,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의 저밀도 주거공동체에서 있어서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삶의 흔적과 자연과의 관계가 남은 곳은 역시 주거에서이고, 아무리 현대화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담은 그곳이 바로 주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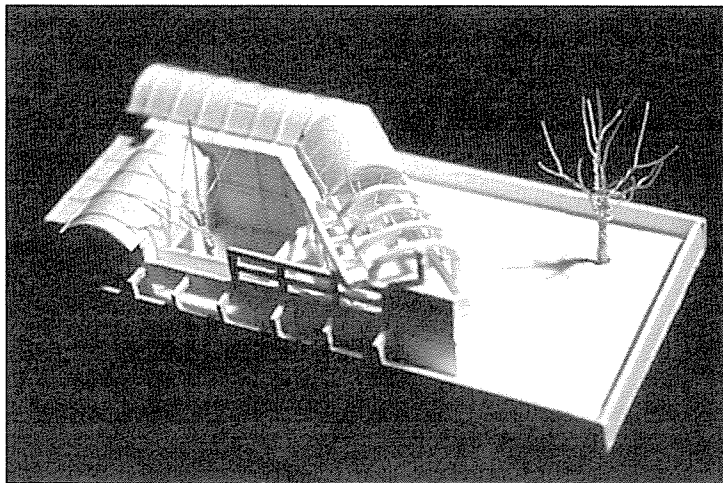
최근 실내장식용어에 무가구실내 'no furniture'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구를 파는 상점에서는 의자세트나 장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한 때 입식생활로 거실에 의자세트들로 채워졌던 것이 요즘은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좌식생활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 대대로 안방, 마루 등에서 살던 습관이 아직도 무의식중에 남아있어서 그런 좌식생활로 회귀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토록 삶은 보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의 도시주거문화를 생각하면서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분당이라는 신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주택전람회의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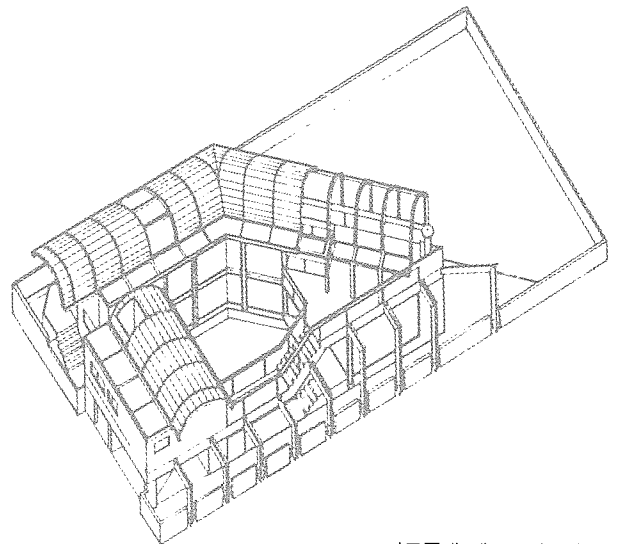
분당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직선거리로 2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과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분당자체의 크기는 남북이 약 8km 정도이고 동서가 약 2km 정도 되는 580만평의 택지이다.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중간에 자그마한 구릉들이 있으며 계곡을 따라 서너개의 작은 하천이 동서로 흘러 탄천을 형성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부분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표고가 제일 높은 지역은 300~400m 정도 되고 개발구역의 표고는 100m에서 제한하고 있다.

계획될 대상지는 이 지역의 외곽,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특별설계구역 #3 : C-4, 6, 7블럭의 19,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전체지역에서 약간 외지다실을 위치인 중앙부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자연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만나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의 모퉁이 'Edge'로 자연과 거대한 아파트단지를 동시에 배경으로 갖는 단지이다. 가까이 시범단지과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고 남동, 남서쪽으로는 근린공원과 산이 맞닿아 있으며 북서, 북동으로는 고층아파트단지에 면해 있다. 남서쪽의 근린공원은 중앙공원의 녹지체계와 보행자도로가 연결되게 되어있다.



단독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류춘수 作

이런 단지는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기보다는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도시의 경험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상 대지의 대부분이 한쪽의 산을 깎아생긴 절개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자연스런 단지설계가 단순히 도면상에서 중앙공원의 연장선을 그은 것 뿐인지, 혹은 개발제한 표고가 100m였기 때문인지, 단지의 현장은 주택지가 되기에는 불리할 4~5m 이상의 절개지가 주로 일조방향인 남서, 남동방향으로 깎여져 있었다. 그것보다는 대지 전면의 근린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평탄한 평지-현재 작은 잡목만 있는-를 확장하여 주거지로 계획하고 산을 깎아내리는 대신 산의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20필지, 연립주택 20필지가 단지내 도로에 면해서 연결되어 길게 나열되는 식으로 계획되었다. 같은 의도,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지이기는 하지만 밀도가 다른 연립주택과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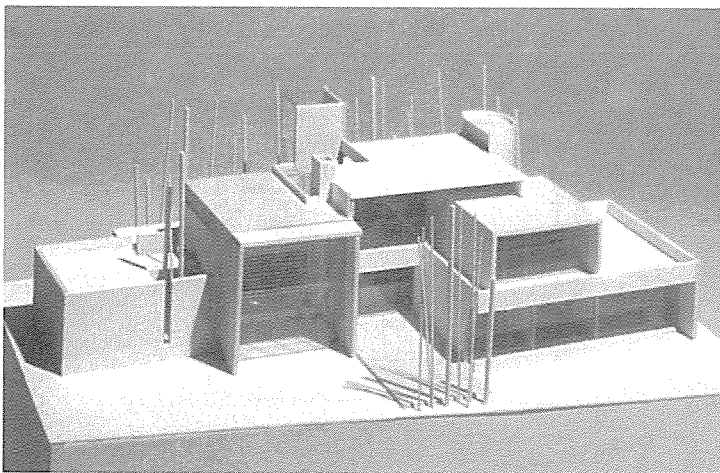
근린주구로써 가능한 20가구의 독립주택은 하나의 단지로서 따로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도시설계가 확정된 이후의 수정이나 변경은 매우 힘들어서 얼마간의 독립주택지가 옮겨지는 것에 그친 상태에서 추천형식으로 각 건축가들이 계획할 대지필지가 결정되었다.

토지개발공사측이 제시한 이번 전시회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제시되어졌다. 기존의 이념과 양식을 탈피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정립과 새로운 마을개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고유의 생활양식을 담을 수 있는 주거의 제안, 자연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참여건축가들이 몇번의 회합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에서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토론투어졌고 선언문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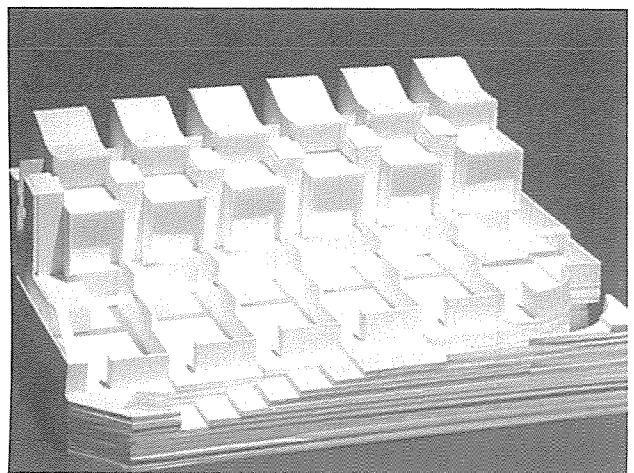
첫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이다. 비록 주어진 단지가 가진 현실적 문제 즉 위치, 길과 대지분할, 프로그램 등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위한 계량적 점검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케 하는 프로그램 설정에 부분적으로 미흡함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외곽도로, 거기에 이어진 단지의 내부 도로, 그리고 이 내부 도로와 각각의 집들이 만나며 또한 집과 집이 만나는 관계에 주목한다. 외곽도로, 내부도로,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연계되는 일련의 흐름을 공동생활에서 사적생활에 이르는 각각의 위계에 따라 명쾌하고 적절한 장소와 공간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의 다양함과 마을의 통일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해결하는 무대로 삼아 이곳이 생활의 공동체로 함께 사는 의미를 되새겨줄 인간성회복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둘째, 우리의 관심은 각각의 단위 주거에 있다. 각각의 단위는 주어진 대지조건, 법적제약, 단위의 규모 등이 현실적 제약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범적 대안을 제시함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참여 건축가들의 서로 다른 건축철학 및 관심의 차이로 하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인정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주거 형식을 이끌어 갈 그리고 맞이할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주장과 제안을 기대한다.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김종성 작

셋째, 우리의 노력은 이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능력에 적절한 기술 개발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건축공학의 학문적 성과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주거건축 자체와 그것들은 현장에서 소원해서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이제 생산현장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실제적 향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법, 재료, 기술에 대한 현실적 해석과 더불어 주택생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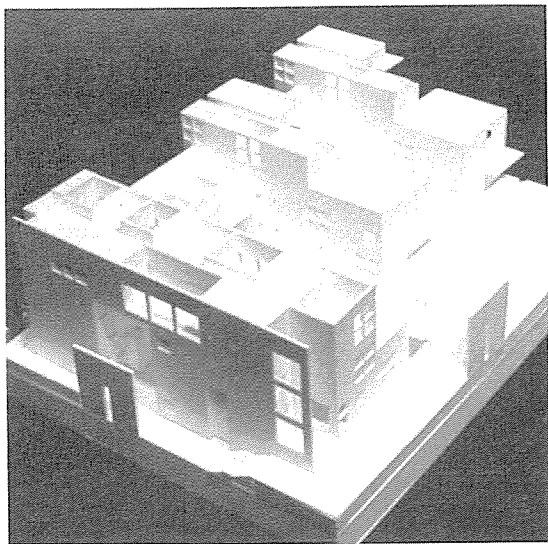
설계조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를 설계자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중산층이상의 소득수준, 주택가격은 5~7억원정도 예상하고, 장년층~노년층대상으로 차량은 2대 정도 소유하고 가정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가정이라든가 등등... 단일 가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하며, 특별한 경우 2가구도 수용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의 이상적 형태와 기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규모는 대지 180~200평 정도의 규모에 건물의 면적은 100평이내의 조건이 주어졌다. 북측의 20m도로변의 담장은 높이 1.8m의 붉은 벽돌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지내 도로변 담장은 1.5m 이내의 목재와 생울타리를 사용토록 하였다. 연립주택은 수용가구를

6~18가구이하로 하고(분양가제한 20가구이내) 각각의 규모는 분양면적 50평 이상 100평미만의 규모로 층수는 3~4층이하이고 용적률은 90%로 제한되어졌다. 인접대지와와 경계는 기본적으로 3m 이상을 띄우고 재료는 1m이하의 생울타리여야 하며, 주차장은 각 건물의 주거전용면적 합계 85㎡당 1대로 조건지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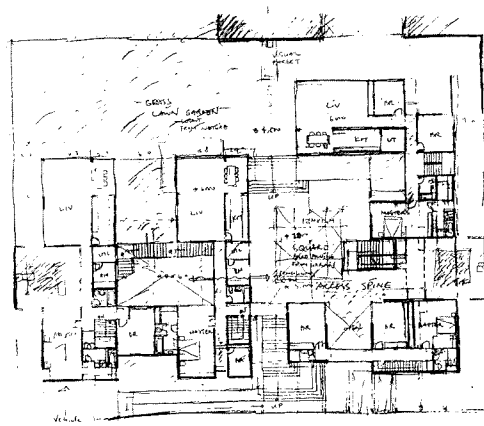
독립주택의 대지나 건물의 규모가 큰 것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때문에 마지막까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평형의 안배가 없이 건축가들 임의로 평수와 가구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하나하나의 대지 평수는 500여평에서 제일 큰 것은 930평이고, 세대수는 6~15세대가 되었다. 심포지엄에서 지적된 것으로 스케일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각 집의 평형의 크기가 너무 커서 어떤 것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론의 질책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큰 평형의 선호의 결과로 보면 회합의 중간쯤에 한번쯤은 평수조정이나 혹은 전체 프로그램상에 평형의 안배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자책해 본다. 계획당시의 분위기는 주로 상품적인 가치로 어떤 평형이 더 인기가 있을까에만 초점이 모아져서 작은 평형의 경우는 수정을 요구할 정도였으니까.

단지 전체의 필지구획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단지가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기에는 대지들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지가 근린주구의 알맞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12~20가구의 모임이 이상적이고 그런 모임들의 연결이 하나의 동네를 만드는 것인데, 6~10가구의 작은 단지에서 각각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에서는 하나하나의 모임의 이미지를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지인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6~10세대의 작은 단지들이 모인 것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작은 단지는 15m도로에 의해서 구획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연속된 아무리 넓은 단지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단지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만의 도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만한 단지를 만들고자 할 때 건축주의 별난 요구도 없고, 밀도 낮은 용적에 특별설계구역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아름다운 마을, 견고싶은



공동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평면스케치

승효상 作

거리를 꿈꾸게 된다. 요즘 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도보자의 낭패스러움을 우리들 모두는 안다. 걷고싶은 거리란 차의 통행이 없는 보행자만의 거리, 단지와 단지를, 단지과 도로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 도시적 탐험으로 가득찬 골목길 등으로,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꿈의 요약인 선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의 면적을 조금씩 줄이고(120~150평)연립 주택의 평균 평수가 650평 정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지의 단지계획안에 따른 도로 및 단지계획고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난 후, 운영상 선결과제가 제시되어졌는데, 그것은 주택전람회의 성격을 개별건축가의 독립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하나의 소형식을 취할 것인가, 단지 전체가 공동의 주제하에 조화된 마을을 만드는 공동의 작업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와 함께 이 전람회의 테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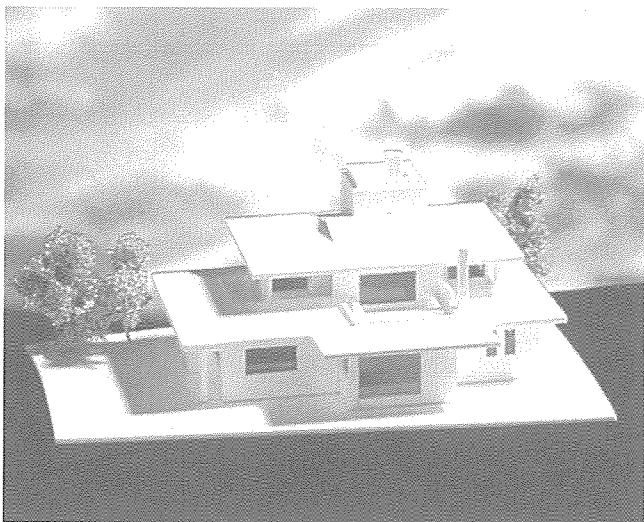
토지개발공사측은 설계자 선정위원을 건축관련 언론사 편집부장이 추천하는 건축평론가, 종합건축사무소, 서울소재

종합대학 건축과교수, 건축학회 및 건축관련 협회회원 등 총 113명의 각계의 건축관련 종사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그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득표 추천순으로 선정된 21인의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연대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념이 비슷한 것도 아닌 것이기에 몇번의 회합을 통해서 단지 전체가 공동의 주제하에 조화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어렴풋한 감지와 함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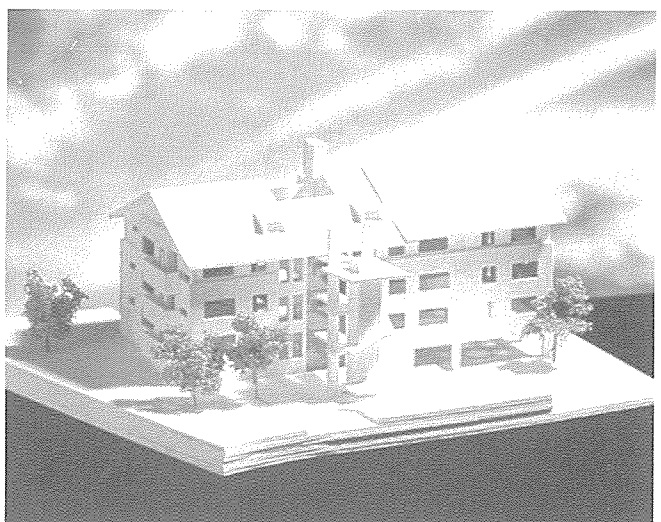
그러나 돌이켜보면 ‘조화된 마을’의 기대이상의 욕심보다는 또 주택전람회로써 하나의 소형식이라는 평가절하의 방법보다는 적어도 도시설계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키고 싶다, 혹은 하고싶다, 실현시키고 싶다 라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단지 전체의 흐름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커뮤니티시설은 어떤 것을 두자라든가 단지들끼리의 유보도로를 연결하자든가, 각 단지는 각자의 대지경계선을 둘러쌓는 폐쇄형을 취하지 말자든가, 주 도로쪽으로는 공공을 위한 여분의 공간을 만들자든가, 그러한 공간이 꼭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린 공간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자든가 하는 등의 주거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의미회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공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지침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건축가에게 이런 기회란 자신의 꿈을 펴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좋은 장이다. 현실에서 부닥쳤던 많은 제약들이 제거되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삶의 선택과 가능성, 다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특정건축주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가가 자유롭게 상황을 설정하고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 계획이념에서의 새로운 정립, 기술적인 공법, 재료사용의 아방가르드적 시도, 개념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총합될 수 있는 디자인 등... 그러나 한가지 이런 계획안이 주택시장에 내놓아야 할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상업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현실과 타협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존관념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계획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난관과 준공이 되고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엄덕문 작

입주후까지도 발생하게 될 온갖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개념이야말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20개의 주택과 연립주택의 계획안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개념은 역시 마당, 길, 중정 등의 테마이다. 그리고 몇몇개는 분당이라는 위치를 정의하여 각자가 자기의 마당을 갖고 지상권과 지하권을 갖게 되는 타운하우스의 개념,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평면에 계단실형을 복합한 것,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아트리움이 있는 생태주택개념, 특히하게도 단지의 각 주호가 단지에 대해 폐쇄형을 취한 중층의 개념 등...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마당은 보다 입체적이고 이용도를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단선적이고 단순하며 이차원적인 선에서 끝난 것 같다. 인용하자면 '중정을 공동체에 대한 도상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통건축의 마당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다. 마당의 중요성은 공간상의 여백일 수도 있고, 그곳에 계획적이든 자연적이든 많은 사람이 다니고 접촉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배치에 의한 형태상의 기능외에 공간상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마당이 이웃 단지의

마당과 연결이 되어 있어 유보도로로써 아이들이 놀러다니거나 저녁을 마친후의 산책로로써 도시의 감각과 일상적 체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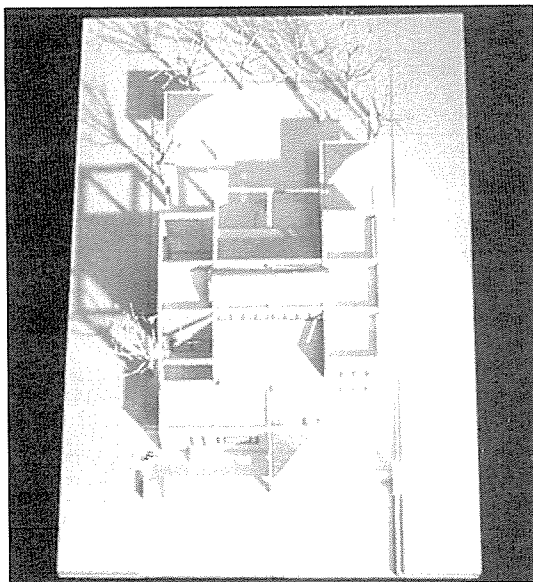
타운하우스의 개념은 여기에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례로 보아 순전히 타운하우스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약간 무리가 있지않았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용적률 90%를 맞추기 위해서는 2층으로 할 경우 건폐율이 45%가 되며 3층으로 할 경우는 건폐율 33%가 된다. 2층으로 할 경우는 그러나 앞마당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또 대지의 제한된 길이에서 세대를 짤라서 써야 하므로 충분한 폭(기본 폭 8~10m)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폭에서 용적률을 맞추다보니 건폐율은 거의 35% 이상이 되고 거기서부터 평면을 짜다보면 주용도인 침실이 3층으로 올라가거나 3층에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타운하우스만으로 구성된 계획안의 경우는 용적이 90%를 찾기가 어려워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단지의 법규적 측면만으로 본다면 타운하우스와 적층주택의 복합을 취하는 형식이 가장 고전적 해석이 될 것 같다.

삼세대주택과 핵가족을 위한 주택이

공존하는 단지, 가족간의 위계에서 아버지의 위상을 돈독히 해 줄 사랑방들의 출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이다. 가까운 미래의 재택근무제의 보편화에 대비한 것일 것이다. 또 전문직 가족을 위한 아트리에 등이 눈에 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근본적인 현실을 다루고 그것이 건축으로 표현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또 단지가 이웃간이나 가족간에도 폐쇄형을 취하는 계획안은 현대인의 새로운 생활상, 바람직한 생활상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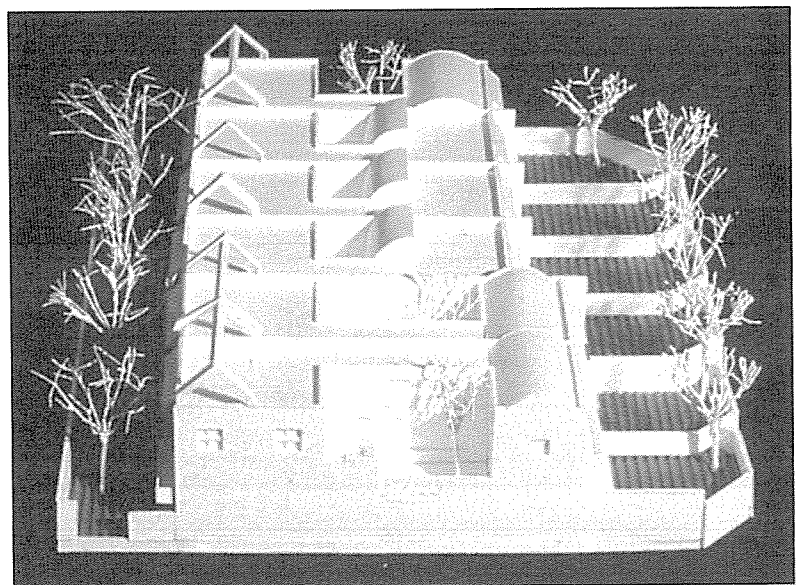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평면과 공간과는 다른 내부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를 가지며 다양한 변화를 가진 내부공간, 기능위주의 공간에서 불편하지만 빛과 어둠에 의해 색다른 체험을 주는 공간 등...

여기 주택전시회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여지는 이곳을 사는 각 개인의 삶의 양식과 감성이 같은 도시에 살지만 일년내내 한번도 우연하게 마주칠 수 없는 도시의 익명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해 살거나 여러가지 인연으로 가까워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도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단독주택 모형도

윤승중 작



공동주택 모형도